

“지금 우리는 히말라야 깊숙한 설산 속으로~”

하기환(공대 63) 동문,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가다

(전문)

지난 10 월 20 일 우리는 다시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팀원은 나를 포함해 스키협회 활동을 함께 하는 론 김, 제인 김, 하경철, 그리고 사위인 샘 김까지 5명. 카트만두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엄청난 폭동 탓에 뉴스로 본 카트만두의 모습은 불바다 그 자체였다. 시위대는 정부와 의회가 모여 있는 정부청사에 불을 질렀고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다. 주위에서는 이런 상황을 걱정했으나 계획을 미룰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이하 EBC)까지 트레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니까.

네팔 불안했지만 ‘미룰 수 없던’ 여행
사가르마타 공원 관문 지나 히말라야로
아찔한 출렁다리 건너 끝없는 오르막길

2024년 10월에 도착한 카트만두는 대홍수에 휩쓸렸다. 악화된 기상이 히말라야에서는 눈폭풍이 되었고 모든 교통편도 막혔다.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 인도관광으로 바꾸었었다. 올해 네팔의 엄청난 폭동은 뉴스로 알고 있었으나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네팔 사람들이 트레커들에게는 매우 우호적이라는 말을 믿기로 했다.

다시 도착한 네팔에는 시위는 멈추었으나 히말라야 뉴스는 좋지 않았다. 얼마 전 눈사태가 나서 한국인도 죽고 날씨가 계속 나쁘다는 소식. 카트만두는 날씨가 좋아 도착 다음 날인 21일 루클라(Lukla)공항으로 이동했다. 루클라공항은 지금도 몇십년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 1위를 놓치지 않는 곳. 대략 500m 정도의 짧고 경사를 가진 활주로. 자동유도 같은 장치마저 없어 조종사 감으로 착륙하는 해발 2,850m의 공항. 루클라공항 정식 명칭은 에베레스트 초등자 ‘힐러리 텐징’ 공항이다. 일주일 견지 않으려고 탄 비행기 무사착륙에 모두 파일럿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 시골의 버

스 대합실 같은 비좁은 공항터미널은 막 도착했거나 트레킹을 끝낸 외국인들 그리고 등짐 질 일거리를 찾아 나왔을 포터들로 미어터질 듯 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 아찔한 출렁다리를 건너고 끝없는 오르막길을 걷는 멀고도 험한 길이다.

그런데 우리 짐 2 개가 오지 않았다. 2 시간이나 기다려도 짐이 오지 않기에 대행사에게 말기고 출발하기로 했다. 북새통 공항을 빠져나와 걷는 루클라 마을이 오히려 산뜻하다. 돌을 깔 길은 깨끗했고 길옆으로는 음식점과 장비점이 즐비했다. 오토바이와 리к샤로 혼란스러운 카트만두 타멜 거리에 비하면 오히려 여기가 더 깨끗해 보였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에 파상 라무

(Pasang Lhamu)의 아치가 보인다. 여성 셰르파 파상 라무. 그녀는 1993년 네팔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그러나 하산 도중 탈진한 동료와 비박하다 함께 숨졌다. '네팔의 별'이란 별명과 함께 카트만두 중심가에도 파상 라무 동상을 세워 놓았다.

마니석 옴마니밧메흠

첫날은 루클라에서 3시간 정도 거리인 팍딩(Phakding· 2,652m)까지. 내리막길 트레킹 시작부터 6,000m 급 설산이 보일 만큼 날씨가 좋았다. EBC 트레킹을 계획하며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 루클라공항, 고산병, 그리고 나이. 우리는 나름 철저히 준비했다. 고산증 약을 챙기고 음주와 샤워를 금지하고 천천히 움직일 것을. 그리하여 만든 구호가 '팀원 중 단 한 명도 고산증에 걸리지 않는다' 였다. 결론론적이지만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달랐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가 만 77 살. 평생 스키를 타며 거친 야외활동에 잘 적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번에도 체력이 따라 줄까. 걱정스럽다.

민감한 사람은 백두산보다 높은 루클라 출발부터 고산증을 느낀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스키클럽 멤버들 답게 미국 고산 스키장에서 고소훈련이 된 덕분일 것이다. 오늘 산행은 짧기에 일정에 여유가 있었다. 길가에는 돌에 옴마니밧메흠 불경을 새긴 마니석이 많이 보인다. 납작한 돌들에 불경을 적어 탑을 만들었다. 알 수 없는 글자의 티베트 불교 마니석이 우리 눈에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보인다. 네팔은 힌두교가 국교였다. 지금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힌두교도이고 불교도는 소수이다. 우리가 걷고 있는 지역을 쿨부 히말라야라고 부른다. 티베트에서 넘어온 셰르파족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티베트 불교를 믿는 것이다.

팍딩에 도착해 롯지 방을 배정받았다. 열악한 숙소에 난방이 없는 것은, 2023년 안나푸르나 등산 때 경험했기에 이번에는 보온 옷과 슬리핑백을 단단히 준비했다. 그러나 팍딩은 고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건지 샤워도 할 수 있고 방안에 화장실도 있다. 그게 무엇보다 고맙다. 오래 전 위 수술을 받아 매일 아침 오랜 시간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샤워실에 수건과 비누가 없다. 오지 탐방이니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 내복을 수건 삼고 비누는 가져온 샴푸로 대신했다. 팍딩에서의 첫날은 그런대로 지낼 만했다. 내일부터는 강행군이 시작될 것이다.



날이 밝았다. 롯지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7 시 30 분부터 걷기 시작했다. 오늘 목적지는 남체 바자르(Namche Bazar). 해발 3,440m 고지의 이 마을은 바자르, 즉 시장이라는 말이다. 티베트와 교역을 하던 곳이며 에베레스트 등반기지이자 셰르파들의 주거지로 유명하다. 팍딩이 2,652 미터이니 무려 800m 를 오르내리는 10km 이상의 산행길. 날씨가 좋아 탐세루크(Thamserku·6,608m)봉이 훤히 보인다. 정상이 두 개로 이루어진 설산이 압도하듯 우뚝하다. 과연 지금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 깊숙이 들어가는 중이다. 문조 마을을 지나자 입산 체크포스트가 보인다. 검문검색이나 통행료 징수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수직에 가까운 벼랑 사이에 병목처럼 자리잡아 에베레스트 쪽으로 가려면 꼭 거쳐야 한다. 검문소에 '사가르마타' 국립공원관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에베레스트는 영어식 이름이고 네팔 말로는 사가르마타. 여기부터 사가르마타 공원 관할이란다. 사가르마타 관문을 지나 버

랑길을 내려가 두드코시(Dudh Koshi) 강가에 닿았다. 돌아보니 검문소는 과연 절대로 몰래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자리했다.

우윳빛 강이라는 두드코시를 따라 오르는 길. 강물 소리가 요란하다. 강을 건너는 아슬아슬하게 긴 쇠밧줄 출렁다리가 나타난다. 현수교 쇠줄 난간에는 바람에 삭은 룡따가 훑날리고 있다. 몇 번 이 출렁다리를 건너왔으나 건널 때마다 언제나 오금이 저린다.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 우리 앞에 정말 무서운 구름다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조르살레

(Jorsalle·2,810m) 마을에 도착해 볏음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조르살레가 2,810m 이므로 200m 가까이 올라 왔다. 4 시간 걸어 겨우 고도 200m를 올랐는데 목적지 남체까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고도가 630m.

강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협곡 깊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과연 깎아지른 양쪽 절벽 끝에 걸린 길고 긴 출렁다리가 보인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출렁다리 두 개가 위아래 2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트레커들이 아찔한 흔들다리를 배경으로 증명사진을 찍고 있다. 다리 이름이 ‘힐러리 구름다리(Hillary suspension bridge)’. 사가르마타 초등자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름을 붙였다. 힐러리는 쿡부 히말라야에 학교와 보건소를 짓는 등 많은 헌신을 했다.

이곳은 원래부터 이층다리가 아니었다. 2012년 아래쪽에 있는 것이 너무 낡아 외국의 도움으로 윗쪽에 새로 만들었다. 쿡부 계곡의 출렁다리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이층다리는 이제 이곳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를 윗쪽. 아랫쪽은 번지점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셰르파들의 고향 남체 바자르로 가려면 꼭 이 다리를 통과해야 한다. 구름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두 개의 협곡은 당연히 히말라야에서 발원한다. 왼쪽은 티베트의 초오유(8,201m)에서 시작하고 오른쪽은 에베레스트(8,848m)에서 발원한다. 엄청난 두 계곡의 물머리가 내 눈앞에서 합류하는 중이다. 이곳 주민인 셰르파 말로는 라르자 도반(Larja Dobhan)으로 부른다. ‘도반’은 한국말로 치면 두물머리. 즉 양수리를 뜻한다. 두물머리가 하나의 물 흐름이 되면 우리가 거슬러 온 두드코시 강이 된다.



남체 바자르로 가는 길목에서 하기환 동문이 설산을 배경으로 '찰칵'.

아찔한 쇠밧줄 출렁다리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요란한 두드코시 강물소리와 함께 다리에 무수히 걸린 룡따가 펄럭인다. 쇠줄에 걸린 오색 룡따는 ‘바람(Lung)의 말(Ta)’이란 뜻을 가진 깃발. 파랑은 하늘, 흰색은 바람, 빨강은 불, 초록은 물, 노랑은 땅을 뜻한다. 만물의 근원이라는 5 원소를 티베트 라마불교는 청, 백, 적, 녹, 황 오색으로 표현한 것.

한 발 두 발 움직일 때마다 다리의 출렁임에 몸이 흔들린다. 마음고생하며 다리를 건너자 진짜 고행이 시작된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깔딱고개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끝은 있다. 대나무 숲 모퉁이를 돌아서니 체크포스트가 있다. 그리고 산비탈에 지어진, 하지만 거대한 남체 마을이 홀연히 나타났다. 남체 바자르라는 말대로 골목마다 장비점이 보인다. 토요일마다 큰 시장이 열리는 쿡부 지역 행정 중심지. 전문 등산장비 모두를 이곳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장비점도 많다.





호텔에서 만난 에베레스트 가이드가 예약한 숙소 방은 역시 난방이 안 되었다. 샤워 역시 복도 끝에 있는 공동 샤워장이다.

미지근한 물밖에 나오지 않아 간신히 몸을 씻었다. 이곳을 오며 좋은 호텔도 많이 보았는데 예약이 모두 끝났는가 보다. 좋지 않은 시설의 롯지였지만 방법이 없었다. 아침에 가이드에게 그런 우려를 전하니 알아보겠다고 말한다. 우리 팀은 현지 파트너 네팔 사람들을 잘 만났다. 우리 팀의 살림꾼 제인 김 님과 소통한 현지 여행사 사장 너버(Never)는

신뢰할 만했다. 기상이변으로 운행이 변경되고 숙소 역시 그러했으나, 너버는 영리하고 또 성실하게 대처해 나갔다. 세상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섞여 있다. 우리가 트레킹 중 인연이 된 모든 네팔 사람들은 정 많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경비 문제도 깨끗하게 처리했고 크고 작은 사고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숙소를 바꾸자는 제안을 받은 너버는 그 어렵다는 에베레스트 뷰 호텔 예약에 성공한다. 남체에서 2 시간 정도 오르면 만나는 콤중에 소재한 호텔. 콤부 일대에서는 유일하며 제일 좋은 호텔이었는데 하루 숙박 요금이 290 불이라고 했다. 더구나 이곳의 위치는 EBC 가는 길이기에 다음날 산행 시간도 아낄 수 있었다. 원래 고산증 적응 차원에서 3,400m 남체 마을에서 하루 더 자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호텔 예약을 한 후 남체 마을 구경과 장비 구매에 나섰다. 에베레스트 관문인 이곳엔 정말 모든 등산장비가 있다. 물론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물건들이 주종이긴 했다. 그러기에 가격은 말 할 수 없이 싼데 너무 잘 만들어서 꽤 쓸만했다. 팀원 중 대부분 거위털 바지가 없어 이곳에서 구매했다. 내일부터 급격하게 고도를 올릴 테니 방한복이 필요하다. 필요한 장비들을 많이 구매했다.

쇼핑이 끝나고 올라간 콤중 마을은 힐러리가 세운 고등학교도 있는 꽤 큰 마을. 우리 호텔은 그 마을을 내려다보는 능선에 서 있었다. 일본인 우에노겐지라는 인물이 만들었다는 호텔. 1960 년에 이곳에 온 그는 우선 경치에 반했단다. 네팔 여자와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1971 년에

완공시켰다. EBC 트레킹 중 이곳에 투숙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 물론 이곳이 예약이 넘치는 이유는 풍경 때문이다. 에레베스트를 중심으로 한 히말라야가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위치. 기네스북에도 3,880m 에 지어진 호텔이라고 친절히 설명할 정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전기장판이 한국제였다. 방엔 히터도 있고 제대로 된 샤워장을 볼 때 LA에서는 별 4개 정도쯤 시설이 되어 보인다. 가격을 비교해도 좋은 숙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전망대에 올라가니 말 그대로 주변 산세가 압도한다. 호텔을 에워싼 경치는 그야말로 별 7개를 주어도 될 것이다. 히말라야에서는 보통 아침이 날씨가 좋다. 그동안 숨어 있던 에베레스트(8,848m)가 정면으로 보인다. 그 곁에 세계 4위봉 로체(8,516m)가 서 있다. 한쪽으로는 히말라야에서 가장 예쁘다는 아마다블람(6,812m)도 보인다. 그야말로 히말라야 파노라마. 전망대에서 보이는 360도 전체가 설산고봉들. 상쾌한 기분으로 산행에 나섰다. 오늘도 강행군이다. 호텔이 있는 쿨중 마을이 3,880m 인데 내리막길 2시간 이상 걸려 3,315m 로 내려서 본 트레일을 만난다. 내리막길이 쉽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가 힘이 더 드는 느낌이다.

EBC 로 가는 3개의 깔딱고개 계곡으로 한참 내려간 풍키텡가(PhunkeTenga·3,250m)라는 마을에서 점심을 먹었다.

히말라야에서는 넘치는 물줄기를 이용해 물레방아로 방앗간을 만든다. 이곳에서도 수차를 만들어 불경이 적힌 나무로 만든 마니차를 돌리는 모습이 이채롭다. 풍키텡가에서 이제 500m 쯤 고도를 올려야 한다. EBC 가는 길에는 3대 깔딱고개가 있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힐러리 브리지 건너 남체로 오르는 고개. 그리고 지금 풍키텡가에서 텡보체(Tengboche·3,867m) 오르는 고개.

마지막으로 투클라(Thukla·4,620m)에서 로부체(Lobuche·4,930m)로 올라서는 세 고개가 그것이다.

정말 끝도 한도 없는 오르막길. 온몸이 땀투성이에 숨도 턱에 차오른다. 물론 고소에서 걷는 일은 힘들다. 쉬고 쉬면서 겨우 고개 정상에 있는 텡보체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에는 웅장한 티베트 사원이 있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니 커다란 부처상도 보이고 건축물도 대단하다. 오지 중의 오지 텡보체 높이 3,860m 를 생각하면 이 건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하다. 이렇게 절을 지으려면 엄청난 건축자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거대한 불상 하나만 해도 어마한 무게일 터인데 어떻게 옮겨왔는지 불가사의하다. 헬리콥터로 옮기기엔 경비도 그렇거니와 무게도 감당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오지에 이런 절을 지었다는 걸 생각하니 종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이 난다.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이 절에서 축원금을 낸 후 라마 고승의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 절집 안에서 붉은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탕화를 만들고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 하니 정중하게 거절한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내리막길 숲속을 걸었다. 강을 건너자 이어 오름길이 시작된다. 힘이 든다.

죽을 힘을 다해 벼랑길에 올라서니 이제 순한 길이 이어졌다. 힘들 때면 주변 경치가 보이지 않는데 숨을 돌릴만 하면 사방 풍경이 눈에 든다. 강을 끼고 가는 착한 트레일 끝에 히말라야 연봉이 보인다. 멀리 에베레스트와 로체봉이 더는 못 간다는 듯 하얀 장벽처럼 막아서 있다. 오른쪽으로는 아름다운 아마다블람이 우뚝하다. 낮은 산에는 단풍이 들고 폭포가 있는 한국의 비선대 같은 풍경이다. 특히 폭포가 있는 경치는 금강산 사진과 매우 비슷했다. 강을 건너는 흔들다리에서 바라보이는 아마다블람 설산은 정말 한 폭의 수채화였다. 산 아래 단풍과 우유빛 빙하가 녹아내린 강. 모든 사물이 잘 어우러진 산수화 속을 가고 있는 것 같았다. 힘들게 이곳까지 온 보람이 있다.

히말라야는 오후가 되면 구름이 몰려들어 날씨가 나빠진다. 오전이 날씨가 좋다는 건 그동안 경험이 알려준다. 사진을 간간히 찍으며 걷는 중 설산이 구름에 가려 숨어 버린다. 산자락에 걸친 수많은 폭포를 보며 오늘 숙소인 팡보체(Pangboche·3,930m)에 도착했다. 이곳엔 재작년 안나푸르나 트레킹 때 카트만두에서 만났던 엄홍길 대장이 세운 휴먼스쿨이 있다. 이

마을에서 숙소를 배정받았다. 사람 눈은 참 믿을 수 없다. 전날 묵은 에베레스트 뷰 호텔에 비하니 너무 초라한 롯지. 다행히 방에 샤워장과 변기가 있었다. 호텔에서 자지 않았다면 꽤 괜찮은 롯지였을 것이다. 롯지에 난방이 되지 않아 샤워 끝내고 몸을 닦는 동안 온몸이 떨린다. 고도를 올릴수록 추워지고 또 기압 차이가 나니, 히말라야에서는 머리로 감지 말라는 경고를 이해한다.

김재수 대장을 만나다

아침이 밝았다. 오늘부터 3일간은 무지 힘든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고소 산길을 올라 7시간 정도 걸려 로부체(4,910m)로 올라가야 한다. 아침 7시쯤 출발. 힘들다는 경고와는 다르게 시작은 평평한 계곡길이었다. 평탄한 길을 걸으며 만나는 설산 연봉은 정말 아름다웠고 감동적이다.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넓은 고원길이 나타난다. 눈부신 설산 아래 짐을 지고 천천히 걷고 있는 야크 무리들.

그리고 도꼬(Doko)라고 하는 대바구니에 트레커 짐을 싣고 걷는 포터들. 대바구니 도꼬는 아래는 좁고 위로 갈수록 벌어진다. 사다리꼴을 거꾸로 세운 모양.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등짐의 지혜인가 보다. 가벼운 것을 아래에 놓고 무거운 걸 위로 놓아야 등짐지기가 좋다. 또 하나 포터들은 무거운 등짐에 머리띠를 사용해 지고 다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야크와 노새와 포터들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덩보체라는 마을 롯지에서 묵었다. 이곳은 아일랜드 픽이라는 6201m 산을 갈 수 있는 분기점의 마지막 마을이기도 했다. 산을 올라갈 수록 롯지는 열악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아침에 산행을 시작하여 한참 걷다 보니 왼쪽 계곡 밑으론 페리체란 마을이 보였고 많은 헬기가 그곳에서 뜨고 내리곤 했다. 우리도 하산길엔 페리체를 거칠 것이다.

점심은 투클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했다. 점심을 하는 중 한국인 한 명을 만났다. 알고 보니 유명한 산악인 김재수 대장이었다. 한국인으로 히말라야에 있는 8,000m 급 14 좌를 모두 오른 사람은 모두 7명. 김재수 대장도 그들 중 한 명인데, 7명 중 3명은 히말라야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살아남은 4명 중 한 명인 김재수 대장. 신문이나 유튜브에서 본 고(故) 고미영 대장과의 인연도 눈물겨운 서사였다.

이번에는 투클라 옆에 있는 산 6,500m 대 봉우리를 등반하러 온 것. 그가 현재까지 오른 히말라야 봉은 50개 정도. 참 대단한 산악인이다.

투클라부터 아주 어려운 오름길이 시작되었다. 돌산 오르막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앞서 말한 대로 EBC에 오르는 길 3번의 깔딱고개 중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로부체에 이르는 바로 이 고개였다. 쉬엄 쉬엄 겨우 올라 선 너른 고개마루에는 캐른(cairn)이 줄지어 있다. 캐른은 산의 정상이나 등산로를 표시하기 위해 쌓아 올린 돌무더기를 말한다. 또한 산악인들이 조난 등으로 사망했을 때 추모하기 위해 쌓아 올린 돌무더기이기도 했다. 투클라 고개 정상에는 조난당한 산악인 묘비가 무척 많았다.

캐른 숫자만큼 수 많은 산악인들이 눈앞의 히말라야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캐른 동판에 사진과 약력을 붙여 넣은 것도 보인다. 그중에는 한국인 이름도 많이 보였다. 산악인들이 캐른으로 남아 있지만, 그 뒷쪽 하얀 히말라야는 말 없이 굽어보고 있었다. 어려운 고개를 넘어 로부체(4,910m)에 도착했다. 이곳의 롯지 중 Mother Earth 란 곳에 도착하여 등산을 끝냈다. 바로 앞에 늑체(7,860m)봉이 무너질 듯 서 있었다.



고락셍에서 3 시간 걸려 힘겹게 도착한 EBC. 계곡은 온통 빙하로 가득하고 뒤로는 설산 고봉이 인상적이다. 하기환 동문이 EBC 에 함께 오른 일행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드디어 도착한 EBC

고소이고 또 춥기도 해서 비몽사몽간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오늘 역시 일정이 뻑뻑한 터라 서둘러 산행에 나섰다. 우선 해발 5,180m 에 자리한 고락셍(Gorak Shep)으로 향했다. 거기가 EBC 가는 길목 마지막 롯지가 있는 곳. 고락셍 뒷산 칼라파타르(Kala Patthar) 봉이 에베레스트 정상이 보이는 뷰포인트였다. 이곳에 오는 중에는 다른 산에 가려 에베레스트 정상은 보이지 않는다.

시작은 완만했지만, 가파른 오르막길로 이어진다. 고도가 5,000m 가 되니 한 발짝 떼는 것도 숨차고 어렵다. 모든 힘을 다해서 올라가고 내려서기를 반복했다. 어느 사이 완만한 내리막길이 나타나더니 마지막 롯지가 모인 고락셍에 도착했다.

애초 예약한 롯지는 너무 시설이 안 좋다. 다른 곳의 롯지를 찾아 옮기고 일단 짐을 풀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팀의 마지막 목적지인 EBC 로 향했다. 이제 우리는 쿼부빙하 고락셍 모레인(moraine) 빙퇴석 지대를 걷고 있다. 모래인은 빙하에 의해 운반되고 쌓인 퇴적물. 이 지역은 거친 암석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모레인 지대를 걸어 EBC 로 산행을 시작했다.

왼쪽으로는 하얀 눈을 쓰고 있는 푸모리봉이 우뚝하다. 눈앞으로는 에베레스트에서 어깨걸고 내려오는 봉우리들이 더는 못 간다는 듯 막고 있다. 오후라 그런지 좋던 날씨가 구름이 끼고 나빠지기 시작했다. EBC 까지는 생각보다 꽤 멀었다.

가끔 모레인 사이로 빙하가 만든 파란 호수가 보였다. 가도 가도 베이스캠프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원정대가 대부분 철수해서 텐트가 몇 개 없을 거라고 했다. 봄에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제일 많고 가을엔 그보다 적는데 10

월 후반에는 모두 철수한다는 것이다. 여름을 지나며 눈이 많이 녹은 상태라 눈사태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밭에 차인 돌이 빠지면 얼음이 보이기도 했다. 바로 에베레스트로부터 내려가는 콤부빙하였다. 빙퇴석이 덮인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빙하 얼음 위를 걷는 중.

끝 모를 길을 걷다 보니 멀리 EBC 가 보이기 시작했다. EBC 가 5,364m 인데 눈 아래로 보인다는 건, 우리가 더 높은 곳을 걷고 있다는 말이다. 모레인을 걸어 내려가야 EBC 를 만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5,400m 이상을 걷는 셈이다. 내 평생, 이 높이를 오른 적이 없다. 그런데 고맙게도 숨쉬는데 이상 없고 고소증에 머리도 아프지 않다. 스키협회 회원들과 미국 높은 산에서 스키를 많이 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스키장도 원래 고산에 있다. 일례로 콜로라도 브레켄릿지(Breckenridge) 스키장은 3,900m 위까지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드디어 우리팀 목적지 EBC 에 도착했다. 이곳 큰 바위에 EBC 라는 표시가 써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무엇인가 울컥 치밀어 오른다. 몇 개의 원정대 텐트가 보였다. 빙퇴석 돌무덤에 텐트를 치고 있는 원정대. 등반이 끝나지 않았는지 사람들도 보이고 등짐을 나르는 말도 있었다. 그 앞으로 콤부빙하와 눈부신 설원이 펼쳐져 있다. 빙하가 폭포를 이루어 아이스폴이라는 별칭을 얻는 얼음 빌딩 군락들도 보인다. 아쉽게도 에베레스트 정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뷰 호텔에서 실컷 보았으니 억울할 건 없다.

우리 팀중 몇 명은 고산증세가 심했던 모양이다. 힘든 모양인지 늦게 올라왔다. 그러나 우리 팀이 목적인 EBC 에 모든 인원이 도착했으니 2 년간 별렀던 원정은 성공한 것이다.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럴 땐 빠른 하산, 탈출이 필요하다. 서둘러 고락셉으로 하산했다.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샘김이 말을 타고 하산했다. 말은 히말라야에서 '택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상이나 고산증이 심한 사람을 태우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다. 팀원 중 하경철이 말을 제일 많이 이용한 사람이었다. LA 에서 출국 전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쳤는데 오랫동안 별로 온 원정이니 포기를 할 수 없었다. 말이 없어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 수 있었다.

말 택시와 헬리콥터

새벽부터 8 시간 이상 걸은 날이다. 땀을 흘려 그런지 온몸이 끈적거리려 뜨거운 물 한 통을 사서 엉터리 샤워를 했다. 고산에선 절대로 목욕하면 안 된다고 했으나 그냥은 못 잘 것 같았다.

로부체에서 만났던 노르웨이 등산객이 인사를 건넨다. 그는 지금 허리케인 같은 빅스툼이 오는 중이라 알린다. 자신도 EBC 찍고 바로 페리체로 내려갈 거라고 말한다. 그곳에서 헬기를 타고 하산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끄는 히말라야에서 일기예보는 못 믿는다며 고락셉에서 자야 한다고 고집했다.

10 월 28 일 아침이 밝았다. 일어나 보니 어젯밤 내린 눈이 30cm 이상 쌓여 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다. 그래도 계획대로 로부체로 하산하는 수밖에 없다. 사위 샘김은 고산증이 심해져 250 달러를 내고 말을 타고 페리체까지 하산을 시작했다. 고산증의 일종인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도 출발했지만 눈길을 걷기가 쉽지 않다. 눈에 가려진 길 찾기도 고역이었다. 빙퇴석도 울퉁불퉁이라 미끄러지고 걷기가 몹시 힘들다. 나는 배낭 속 크렘폰을 꺼내서 착용했다. 쇠발톱을 차니 미끄러움이 훨씬 덜 하다.

팀원 중 크렘폰 준비를 못 한 사람이 있었다. 한쪽을 나누어 주었다. 날씨는 계속 나빠지고 눈은 계속 오고 있다. 경사진 길이고 눈보라 속이지만 속도를 조금 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왼쪽 발목이 접질리면서 우두둑하고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나는 길옆 계곡으로 쓰러졌다. 뒤에 오던 동료 가 놀라 나를 끌어내 세웠다. 도저히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겠다. 크렘폰을 한 짝씩 사용하면 더 위험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몰려왔다. 가이드가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로부체 마을로 내려가서 말을 불러왔다. 로부체에서 더 내려간 페리체 마을까지 200 달러에 가기로 계약을 끝냈다.

그동안 보기만 했던 말 택시를 나도 처음으로 탄 것이다. 발목이 많이 부어 올랐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부상이다. 말을 타니 무지 빠르고 힘이 덜 들어 좋긴 했다. 눈이 계속 오는 가운데 간신히 페리체 마을 숙소에도 도착했다. 즉시 카트만두 헬기회사에 연락했지만 날씨 관계로 운행불가. 발목 통증은 좀 줄었으나 밥맛은 없어 그날 저녁은 굶었다. 눈이 내리면 헬기는 뜨

지 못하는데 악천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걱정이 창밖 눈처럼 쌓여 가는 밤이었다.

아침이 밝았고 다행히 눈은 그쳤다. 통신혁명은 콤부 히말라야에도 들어와 휴대폰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페리체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기에 5명의 팀원 모두 한 대에 탈 수 있었다. 헬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 새벽부터 서둘렀다. 짐을 다 싸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끝내 놓았다. 헬기가 7시경 도착했다. 걸을 수가 없는 나를 가이드가 업어 날랐다. 우리는 헬기를 타고 우선 루클라공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시 2시간 정도를 카트만두행 헬기를 기다렸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헬기를 타고 카트만두 공항에 내렸다. 공항에서는 바로 카트만두 국제병원으로 달렸다.

국제병원은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종합병원이라고 했다. 이머전시 룸으로 가서 우선 X-Ray 를 찍었다. 결과는 복사뼈 가운데가 Crush 가 되어 있었다. 복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게 보인다. 오른쪽 발목도 이상해서 CT Scan 을 했다. 스캔 결과는 이상이 있으나, 이번 사고가 아니고 오래된 상처라고 한다. 오래 전 수술자국이 나타난 것이다. 발목이 많이 부어 있으니 우선 반쪽 기브스를 했다. 붓기가 내리면 전체 기브스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히말라야가 알려준 세옹지마

병원의 정형외과 담당이 너무 친절하다. 설명도 잘 해주고 목발 사용법도 알려준다. 청구서를 보니 400 달러다. 병원비가 너무 싸서 놀랐다. 사위 샘도 고산증으로 기침이 심했다. 샘도 폐 X-Ray 를 찍고 약도 처방 받았는데 30 달러라고 했다. 미국 같으면 적어도 1만달러 이상 청구서가 나왔을 것이다. 원래 메디케어 보험은 외국에서 일어나도 ER 에 가서 나온 치료비는 돌려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치료비가 너무 싸서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호텔로 돌아왔다. 앞으로 목발을 6 주 동안 하고 다닐 생각을 하니 답답하긴 하다. 2016년에 스키사고로 발목을 다쳐 수술하고 6 주 고생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오른쪽 발목 지금은 왼쪽이니 이제 더 부러질 발목이 없다. 호텔에서 오랜만에 더운물로 간신히 샤워를 했다. 저녁엔 휠체어를 타고 한국 식당을 찾았다. 원래 계획은 EBC 를 끝낸 후 은둔의 왕국이라는 부

탄 여행을하기로 했었다. 나와 샘은 서울로 가지만 나머지 3 명이라도 부탄에 갔으면 했는데 모두 포기한다.

EBC 원정에 지쳤는지 모두 안 간다고 해서 일정을 당겨 서울로 가기로 했다. 대한항공 직항 비행편이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없어 카트만두에서 3 일을 더 묵었다. 카트만두는 모든 것이 저렴하다. 물론 달리가 강세인 점도 있으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 그럴 것이다.

그래서 쇼핑하기도 좋고 먹고 자기도 부담 없다. 일행은 템플 관광도 하며 카트만두 명소를 찾았고, 나는 호텔에 있다가 저녁 식당에서 그들을 만났다. 호텔방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EBC** 원정 원고에 집중할 수 있었다. 뉴스를 보고 안 것인데 이번 **EBC** 트레일에 닥친 악천후 대단했다. 인도양서 불어온 허리케인 같은 **Cyclone Storm** 이 덮친 것이다.

우리가 페리체에서 헬기로 빠져 나온 다음, 모든 것이 막혔다. 공항도 폐쇄되고 우리가 내리고 탔던 루클라공항에서도 사고가 났다. 헬기 한 대가 추락하여 사람도 죽었다. 페리체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갇혀 있었을지 모른다. 부러진 다리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야생의 히말라야에서 위험은 늘 곁에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상만사 새옹지마라는 속담은 옳은 말이다. 불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만한 게 다행인 것이고,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새옹지마.

글을 쓰면서 꼼꼼히 기억을 되살려 보니, 정말 **EBC** 트레일은 힘들고 어려운 산행이 맞다. 평생 스키를 타며 알프스나 록키 산맥 고산들을 많이 겪어 봤다. 그러나 과연 '신들의 산 히말라야'는 달랐다. 크기와 높이와 야성이 살아 있는 제 3의 극지. 우리가 이번 극한 체험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아름다움은 고통 끝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시간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나는 다시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연재를 마치며 글 쓰는 것을 도와준 스키협회 테미 김 회원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한다.

